

## Art Issues

## 제4회 베를린 비엔날레, 예술을 거러 곳곳에

독일 베를린에서는 제4회 베를린 비엔날레가 개최되고 있다. 1998년 Nancy Spector와 Hans Ulrich Obrist를 전시 큐레이터로 하여 68명의 초청 작가들과 함께 독일 베를린의 현대예술센터와 중앙우체국에서 제1회 베를린 비엔날레가 개최된 이래 제4회째를 맞는 이번 베를린 비엔날레에서는 Maurizio Cattelan, Massimiliano Gioni, Ali Subotnick가 전시 큐레이터를 맡았다. 1937년 발표된 존 스타인벡의 소설 제목이기도 한 '생쥐와 인간(Of Mice and Men)'이라는 주제로 약 70여 명의 작가가 참여하고 있는 이번 전시회는 지난 3월 25일부터 시작되어 5월 28일까지 대중들에게 공개된다. 이번 베를린 비엔날레의 특징은 전시공간이 미술관에서 '거리(the street)'로 확장된 데 있다.

독일 동베를린의 Auguststrasse 지역에서 개최되고 있는 비엔날레는 고정된 전시공간의 고정관념을 탈피하여 기존 갤러리 공간과 더불어 개인의 생활공간, 사무실, 무도장, 버려진 마구간, 교회, 공동묘지 등과 역사적 의미가 묻어 있는 공간들을 활용하고 있다. 기존 전시공간을 벗어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는 공간을 이용한 전시는 비엔날레 자체의 의미와 역할을 다시 한 번 생각케 하여 다른 비엔날레 행사의 좋은 모델이 되고 있다고 한다.

(관련 웹사이트 <http://www.berlinbiennale.de>)

## 뉴욕시, 문화적 위기감을 느끼다

지구촌 시대 문화예술계를 주도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던 뉴욕시가 9.11테러와 복잡한 국내외 정치 경제사정으로 문화추진도 도시로서의 지위에 강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듯하다. 더불어 적극적인 정부지원에 힘입어 IT산업 등 정보화산업이 강력하게 구축되어 있는 인도, 중국 그리고 한국에 대해 문화적 경쟁 의식을 느끼고 있는 대목이 있어 소개하고자 한다.

지난 4월 5일자 New York Times에 따르면 뉴욕시의 주요 행정가, 예술가, 기업인 그리고 학자들 약 220명이 현대미술관에 모여 컨퍼런스를 열고 이 자리에서 현대 뉴욕 시장인 Michael R. Bloomberg는 높은 임대료로 생존위기의 처지에 놓인 비영리 예술 단체들을 도와 뉴욕을 미국의 문화예술 수도로서 자리매김 할 수 있는 새로운 비영리 단체 지원 행정 사무소를 개설할 것이라고 공표하면서 세계문화중심지로서의 뉴욕의 지위를 양보하지 않겠다고 강변하였다고 한다. 과거에는 창조적인 영역에 있어 한 번도 뉴욕이 다른 여타 지역과 경쟁이 필요하다고 느낄 필요가 없었으나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으며 세계의 다른 도시들이 창조적 허브의 장점들을 빠르게 배우고 있다고 토로하고 있다.

세계적인 안무가인 Bill T. Jones는 이 컨퍼런스에서 '예술단체에 대한 지원이 줄어들고 있고 개별 예술가들의 불안정한 재정상태가 우선적으로 해결되지 않고서 창조적 문화수도를 논한다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며 '무용을 통해서만 단 한 푼도 벌수 없으며, 무용수들은 현재 매우 낙담한 상태이다. 이러한 상황들이 나를 매우 슬프게, 아니 거칠게 말한다면, 몹시 화가 나게 만들고 있다'며 뉴욕에서 활약하기를 희망하는 예술가들이 직면한 도전들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찬정부지로 치솟는 건물 임대료로 인해 소규모의 예술단체들이 고사위기에 놓였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시인하고, 새로 신설되는 행정 사무소에서는 어려운 상황에 놓인 비영리 단체들이 부동산 시장을 검색하고 관련한 기술적 조언과 저리 대출알선, 세제혜택 등 재정적으로 도울 예정이라고 한다.

이번 컨퍼런스는 시 경제부흥의 주요 요인으로서 예술을 포함하여 광고, 출판, 그리고 방송을 '창조적 요인들'을 기술한 지난 12월의 보고서를 토대로 마련되었으며, 기업경영자들의 연합체인 뉴욕동반자(The Partnership for New York City)가 중심이 되어 컨설팅 회사인 Mt. Auburn Associates의 도움으로 보고서를 준비해 온 도시미래중심(Center for an Urban Future)과 록펠러재단, 그리고 뉴욕 시가 공동으로 개최하였다고 한다.

참석자들은 뉴욕시가 가진 문화적 경쟁력이 위기를 맞이했음을 우려하고 앞으로 뉴욕시의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과 세계 문화 생산의 선두 도시로 남을 수 있는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다고 하는데, 문제의 성격을 정확히 규정하기에는 이견이 많았다고 한다. 그 중 누구나 손쉽게 최고의 것들에 접근할 수 있게 되는 세계화 경향을 뉴욕시가 직면한 도전 요소로 언급하며, 뉴욕이 세계 최고의 가장 특색 있는 도시가 되기 위해서 문화에 의존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기도 하였다.

참석자 중 IAC/InterActiveCorp 의 한 경영책임자는 "정부의 기술투자 덕분에 인도, 중국, 그리고 한국이 지금 창조력의 진원지가 되었으며, 뉴욕이 미래의 커뮤니케이션 수도로 남아있을 지는 미지수이다"라고 말하였으며, 뉴욕시내 한 대형백화점의 소유주이자 경영책임자는 재정적으로 곤란을 겪는 예술가들이 뉴욕 중심지인 맨하탄에서 활동할 수 있는 교통 여건미련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참석자 중 한 사람은 9.11테러와 이라크 전쟁, 그리고 미국 입국의 엄격한 제한들이 국제적 예술가들에게 비호감을 사게 만들고 있다며, 특히 널리 알려진 쿠바 관테나노 만 미군 수용소의 재소자들에 대한 학대 역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하였다.

경제발전담당 부시장인 Daniel L. Doctoroff는 관련

연설에서 2000년에서 2004년 사이 89만4천만 명의 주민들이 뉴욕시를 빠져나갔으며 그들 대다수가 교육수준이 높은 자들이었다고 안타까워하면서, 뉴욕 시에 힘을 실어 줄 예술가들을 많이 영입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문화와 예술의 중심은 들고 도는 것일까? 현대의 문화예술 중심이 유럽과 미국 중심에서 아시아와 중동, 그리고 아프리카 등 소위 제 3세계의 다양하고 뿌리 깊은 문화전통에 기반 한 현대문화예술로 다변화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너무 이른 단정일까? 여하튼 현재 우리로서도 상당기간 지속되고 있는 한국의 힘에 무게를 실어 주고, 아시아 등 다양한 주변 나라들과 적극적인 문화예술교류를 위한 행정가, 기업인, 예술가 그리고 예술경영자들의 지혜와 동반자적 관계(partnership)가 더욱 요구되는 시점이다. 예술위원회 예술교류팀 황진수 jshwang@arko.or.kr

## 루브르박물관과 미국 예술가들

루브르 박물관이 오는 6월 14일부터 9월 18일까지 '루브르와 미국 예술가들'라는 이름으로 전시회를 개최한다. 루브르 박물관과 미국 작가들 간의 오랜 우정 관계를 보여주는 이 전시에서 1760년부터 1940년대에 활동했던 작가들의 작품이 전시될 예정이다. 벤자민 웨스트(Benjamin West), 조지 캐틀린(George Catlin), 제임스 휘슬러(James Whistler), 토머스 이킨스(Thomas Eakins), 토마스 하트 벤턴(Thomas Hart Benton), 에드워드 호퍼(Edward Hopper) 등의 작품 등이 바로 그것. 또한 모리스 부호의 창시자로 유명한 화가 새뮤얼 모리스(Samuel F. Morse)의 작품도 초대된다. 현대작가로는 마이크 켈리(Mike Kelly)의 멀티미디어 설치작품이 선보일 예정이다.

한편 2003년도에 루브르와 상호 협력 관계를 맺은 미국 애틀랜타 하이 뮤지엄 오브 아트(High Museum of Art)는 앞으로 3년 동안 몇 회에 걸쳐 루브르 소장품을 전시할 계획이라고 한다. 올해는 약 142점의 회화, 대생, 조각이 전시되며 라파엘(Raphael)의 「발다사레 카스틸리오네」, 샤르댕(Chardin)의 「팽이를 들고 있는 아이」, 푸생(Poussin)의 「아르카디아의 양치기들」 등이 전시된다. 이 교환 전시 프로젝트에 들어가는 비용은 약 1천4백만 유로(한화 약 168억 원)이며, 놀랍게도 전액 미국 메세나 층에서 충당된다. 전체 금액의 약 2/3는 전시 비용으로 들어가며, 약 540만 유로는 루브르 박물관의 전시실 리노베이션에 사용된다. 또한 루브르는 11월경에 1993년 노벨문학상 수상작가인 미국인 토니 모리슨(Toni Morrison)의 강연회를 계획 중이다. 토니 모리슨은 강연과 함께 도시 외곽 거주 청소년들의 즉흥시 짓기 행사도 후원한

다고 한다. 이와 함께 미국 안무가 윌리엄 포사이스(William Forsythe)와 독일 비디오 아티스트 페터 벨츠(Peter Weiz)도 행사에 참여한다.

루브르 박물관의 2005년도 관람객 중 1백만 명이 미국인이었으며, 이는 전체 관람객 수의 1/7을 차지한다고 한다. 그러나 장작 루브르에 소장된 미국 작가의 작품은 3점에 불과하다고 한다.

예술위원회 혁신성괴팀 강성구 sgkang@arko.or.kr

### 상하이 아트센터 건립 계획

오는 2008년 세계 문화산업의 시장규모는 1조7천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문화산업은 매년 연평균 6.8%포인트씩 성장하고 있고, 특히 아시아권에서는 그 증가세가 가히 폭발적이다.

아시아의 대표 문화도시를 꿈꾸는 상하이가 세계적인 예술작품을 유치하기 위해 예술센터를 건립하고 기존의 사회주의적 상상을 깨는 문화집단을 육성하는 등 적극적인 전략을 구사하고 있었다.

지난달 29일 중국 상하이 인민광장 앞 상하이 발전 계획전시관, 2020년의 상하이의 모습이 미니머치로 제작된 축소 도시가 한 층 전체에 펼쳐져 있다. 상하이 시가 중점을 두고 있는 2010년 상하이 엑스포의 한 관계자는 황푸(黃浦)강 남쪽지역을 가리키며 “세계 박람회를 즈음해 세계영화테마공원, 매스미디어TV 종합예술센터, 푸둥시각예술공원, 상하이 크리에이티브 인더스트리 베이스 등이 상하이를 대표하는 명소 자리 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상하이 크리에이티브 인더스트리 베이스는 상하이 시가 문화산업을 키우기 위해 가장 역점을 두는 곳이다. 6차로 대로를 사이에 두고 쪽쪽 치솟은 타워팰리스급 건물들이 ‘가로수 터널’을 이루고 있는 푸둥신구 지역 강장가공원구에 자리하고 있다. 25㎡(756㎡) 평에 달하는 이 기지는 1992년부터 과학기술단지로 개발됐으나 상하이시가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아 2004년 문화산업기지로 바꾸고 계속 확장에 나서고 있다. 위안 리창 총괄 매니저는 “일본 야마하, 한국의 JC 등 국내외 유명 업체 50여 곳이 들어와 있다”며 “기지가 완성되면 5년 안에 200개가 넘는 문화산업 분야의 기업이 들어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화동국가동만유회기(화동문화애니메이션계업단지 NCACG)는 중국 문화부가 처음으로 상하이에 설립한 국가 지정 산학연 단지다. 2004년 개관한 이래 교육과 연구개발, 산업인큐베이팅과 국제합작 등 각종 문화산업의 전략을 짜고 있다. 이곳에서 추진되고 있는 10개 프로젝트 중 어린이 대상 애니메이션과 시나리오 콘테스트를 벌이는 창의력센터, 각종 국제행사를 주도하는 전시센터, 인재 인증체제를 마련하고 있는 교육훈련센터, 홈페이지를 이용해 중국

최대의 문화산업 전자상거래를 준비하는 디지털오락방송센터 등이 주목된다.

예술위원회 대외협력팀 hillie@arko.or.kr

### 2006년 제90회 미국 풀리처상 수상 대상 발표

미국의 대표적인 언론보도상인 풀리처상의 제90회 수상자들이 미국 뉴욕의 컬럼비아 대학을 통해 지난 4월 17일 최종 발표되었다. 헝가리 출신의 20세기 초 일명 ‘신문 왕’이라고 불리며 미국 언론계를 주도했던 조지프 풀리처(1847~1911)의 유언에 따라 그가 남긴 유산을 기금으로 뉴욕 컬럼비아 대학 신문에 제정된 이 상(Prize)은 매년 4월 저널리즘 부문과 문학, 희곡, 음악 등의 분야에서 수상자를 선정 발표하고 있으며 제90회 풀리처상 수상내역은 저널리즘 14개 분야, 문학과 드라마, 음악 등 7개 분야, 특별상 1개 분야 등 총 22개 분야였다.

2006년도 풀리처상 위원회가 공표한 금년 풀리처상 중 저널리즘 부문 공공봉사(Public Service) 분야 수상은 미국 뉴올리언스의 카트리나 참사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감하고도 이해하기 쉽도록 상황을 보도한 미국 미사시피주의 선 헤럴드지(Sun Herald)와 도시가 물에 잠기고 신문 인쇄기계(newspaper plant)조차 철수된 상황에서도 다각도의 포괄적인 보도를 한 뉴올리언스의 타임스피클(The Times Picayune)지에 돌아갔다.

1997년 이후 신설되어 1년 불의 상금이 수여되는 문학 분야는 여류작가인 Gerladine Brooks의 가상적 아버지의 인생을 소재로 한 소설 『3월(March)』이 수상했으며, 드라마 분야는 금년도 수상작이 없었다. 또한 1년 불의 상금이 수여되는 시 분야에서는 대학 교수이자 여류시인인 Claudia Emerson의 「죽은 아내 Late Wife」가 수상하였다. 한 해 동안 미국 내에서 초연되었거나 첫 음반작업을 한 탁월한 작품으로 음악부분상을 수상한 작품은 작곡가 Yehudi Wyner가 작곡하여 지난 2005년 2월 17일에 첫 공연을 한 피아노 콘체르토 「Chiavi in Mano」이다.

〈참고사이트 www.pulitzer.org〉

예술위원회 예술교류팀 황진수 jshwang@arko.or.kr

### 피에트라갈라—광부의 마을에서 춤을

마리 클로드 피에트라갈라 - 광부의 마을을 찾아가 춤을 추다.

자신이 이끌던 무용단과 갈등을 겪던 무용가가 그곳을 떠난다. 그리고 낯설기만 한 광부의 마을을 찾아가는 것이다. 거기서 머물며 그들의 삶과 죽음과 고난, 희로애락을 바탕으로 한 작품을 창작한다. 완성된 작품은 광부의 마을에서 공연되고, 마을 사람들은 감동에 빠진다. 이 작품은 광부의 마을을 넘어 다른

마을로, 다른 도시, 다른 나라로 뻗어나간다. 영화나 연극 속에서나 일어날 만한 이야기가 실제로, 그것도 무용을 통해 벌어진다. 프랑스 무용가 마리 클로드 피에트라갈라(Marie-Claude Pietragalla / 1963년생)는 1998년부터 2004년까지 국립 마르세유 발레단을 이끌었지만 갈등 끝에 자신의 고향이기도 한 남불(南佛) 지역을 떠나게 되었다. 그리고 북불(北佛) 지역의 광산촌과 인연을 맺는다.

북부 파드칼레 지역의회의 지원을 받아 지난해 여름부터 3년간 이곳에 머물게 된 피에트라갈라는 100년 전인 1906년에 이곳에서 발생했던 1천여 명의 광부들이 목숨을 잃었던 대참사에서 영감을 받은 작품을 창작한다.

잠깐의 잠깐이 흐르고, 무대에 모습을 드러낸 피에트라갈라는 탄광이 되어 갱내(坑內) 유독 가스를 내뿜으며 사람들을 질식사시킨다. 거친 리듬과 함께 반복되는 노동 속에서 광부의 몸뚱어리는 엄청난 긴장과 마비로 사들리고, 여인들의 눈물과 함께 대파국으로 차닫는다. 물론 그 와중에도 광부들의 삶에서 드러나는 유머, 유희를 다른 장면들이 보인다. 피에트라갈라는 자신의 작품을 화화와 비교하며 예술과는 특별한 인연이 없는 이 지역에 색채를 부여한다. 일상적인 노동, 가혹한 삶을 다루지만 한편으로 산다는 즐거움, 여성이 갖는 본질적인 위치를 보여주고자 한다. 얼핏 광부와 무용가의 삶은 정반대인 듯 보이는데 이 작품에 참여한 한 무용가는 이렇게 말한다. “무용이 광부들의 이야기를 다루기에는 제격인 예술이다. 무용가와 광부는 다른 무엇보다 자신의 몸이 노동(일)의 도구라는 점에서 공통된다.”

파드칼레의 작은 마을인 살로민(Salamines) 예술의 집에서 피에트라갈라 무용단에 의해 초연된 ‘인간의 조건’은 주민들의 오랜 박수갈채를 받았다. 젊은 시절 광부였던 어느 노인과 그의 부인은 공연을 보고 감동했으며 모든 장면을 충분히 이해한 것은 아니지만, 아주 아름다운 공연이었다고 말한다. 이 작품은 4월 13일, 14일 살로민 예술의집 공연 이후에, 5월 13일 미라마 지역의 콜론 극장, 6월 2일 제리트 드 릴, 7월 8일과 16일은 아비뇽 오프 페스티벌에, 7월 19일과 20일은 니스, 7월 27일은 카르카손 등 프랑스 20여 개 도시에서 선보인다. 이후엔 스위스, 벨기에, 레반트, 중국 등지에서 공연될 예정이다.

그리고 클래식, 모던, 힙합 등 다양한 예술적 원천과 함께, 타किन 등 다양한 국적과 배경의 무용수 9명이 참여하는 이 작품에 한국인으로 김남경 씨가 출연한다.

예술위원회 혁신성괴팀 강성구 sgkang@arko.or.kr